

94년 경기회복 “남의 집 잔치” 대기업 시장참여 무르익는다!!

94년 한해는 경기회복의 순풍이 불었으나 일반화학산업계는 그 바람을 느낄수 없었던 한해였다. 특히 국내 일반화학산업의 구조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94년은 그 어느해 보다는 오히려 힘든 한 해 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주요 페인트·잉크 원자재가격 상승률
(단위 : Kg/원, %)

구 분	1994.1	1994.10	상승률
부틸아세테이트	590	1,150	95
아세톤	380	670	79
SM	460	780	70
메틸아크릴레이트	660	1,060	61
무수부탈산	490	785	60
글리세린	1,150	1,800	57
톨유지방산	510	790	55
메틸메타아크릴	880	1300	48
레이트모노머			
노멀부타놀	500	720	44
에틸셀로솔브	780	1,050	35
이소부타놀	590	780	32
펜타에리스리톨	1,080	1,400	30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850	1,100	29
트리메틸톨프로판	1,200	1,520	27
메틸에틸케톤	630	790	25
이텔아크릴모노머	1,000	1,240	24
에틸아세테이트	700	860	23
메틸이소부틸케톤	750	920	23
톨루엔	241.20	297.71	23
자일렌	276.90	333.71	21
후마릭산	973	1145	18
산화지단	1450	1650	14

페인트시장의 경우 94년초에는 나름대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 불어온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극심한 한파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재산성악화를 불러왔다.

염료산업도 합성섬유에 적용되는 분산염료 이외에는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적인 면작황 부진으로 반응성염료는 대폭 감소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인 접착제산업도 93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접착제의 수요기반인 경공업이 94년에 이렇다할 만한 경기회복이 없었고, 접착제수지의 원료인 기초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 이러한 상황들이 95년에 뚜렷히 개선될지도 의문이다. 원자재 가격상승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페인트와 계면활성제의 경우 94년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95년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확실시돼 고래싸움에 새우들만 갈 곳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있다.

94년 페인트시장 "빛좋은 개살구"

94년 페인트 시장은 외형상으로는 93년에 비해 큰폭으로 성장했으나 재산성면에서는 별 실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들어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용도료와 중방식도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의 유수 석유화학 공장들의 잇

달은 사고는 페인트 원자재가격을 최고 200배까지 폭등시켜 모처럼 맞이한 페인트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원자재가격 상승은 94년말부터 한풀 꺾이긴 했으나 95년에도 지속적으로 페인트기업들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동결되어 있다싶이 했던 페인트가격도 95년을 기점으로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94년 페인트시장 규모는 80만3000톤으로 93년대비 10%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규모로도 1조3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도 선박용도료의 일본 진출에 힘입어 93년에 비해 큰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페인트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용도료 시장은 9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신규물량이 큰폭으로 늘지 않았으며 연초 예상과 달리 보수용도료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4년 건축용도로 시장의 특이할 만한 점은 건축소재의 다양화와 함께 기능성도로의 수요가 증대했으며 바닥재용 도로의 수요가 대폭 신장한 것을 들 수 있다.

국내 도로 수요현황(용도별)						(단위 : kl, %)
구 분	1990		1991		1992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건 축 용	144,633	31.2	154,100	29.2	172,222	29.6
선 박 용	36,518	7.8	37,997	7.2	42,352	7.3
자 동 신차용	16,688	3.6	20,328	3.9	23,725	4.1
차 용 보수용	12,516	2.7	15,031	2.8	10,304	1.8
공 업 금속용	51,919	11.2	55,413	10.5	63,382	11.1
용 목공용	37,085	8.0	39,881	7.5	42,339	7.3
기 철구조물	20,397	4.4	25,387	4.8	33,314	5.7
전기전자	11,589	2.5	11,810	2.2	13,099	2.3
도로표지	9,271	2.0	12,138	2.3	11,988	2.1
플라스틱	5,563	1.2	6,333	1.2	7,557	1.3
타 기타	117,746	25.4	144,690	28.4	160,200	27.6
합 계	463,566	100.0	522,807	100.0	581,482	100.0

1993		1994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195,620	28.8	198,000	28.9
47,547	7.9	50,025	7.3
29,207	4.3	32,300	4.7
13,585	2.0	14,000	2.0
70,641	10.4	80,640	11.7
50,943	7.5	46,000	6.7
35,320	5.2	25,000	3.6
15,622	2.3	16,150	2.4
12,906	1.9	13,200	1.9
8,151	1.2	9,400	1.4
193,583	28.5	203,000	29.5
619,193	100.0	687,715	100.0

선박용도로는 엔고에 따른 국내 선박 산업의 활황과 94년 하반기 일본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15%정도 고성장했다. 94년 선박용도로 생산량은 5만4679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5년에는 선박용도로의 생산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선박시장이 95년을 고비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차용도로는 93년에 이어 94년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94년 자동차 신차용도로의 생산량은 93년대비 10%정도 증가한 3만 2300KL로 나타

났으며 보수용도로 생산량은 93년대비 3.5% 증가한 1만4000KL로 알려졌다.

자동차보수용의 경우 신차용과 달리 수입제품이 시장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4년부터 상용차 생산을 시작한 삼성중공업은 94년 700대 생산에 그쳐 자동차용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공용도로 생산량은 93년대비 9.7% 감소한 4만6000톤으로 나타났으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분체도로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94년 극심한 공급부족현상을 보였다. 이는 물리적 공급량의 부족보다는 분체도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조색불가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95년에도 분체도로 수요자들은 94년보다 더욱 심한 공급부족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94년 분체도로 생산량은 93년대비 20%정도 증가한 2만7358톤으로 추정되며, 95년에도 94년과 비슷한 생산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염화고무계도로는 철제컨테이너 생산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94년 10%정도 감소한 1만359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에폭시계도로는 중방식에서 염화고무계도로의 자리를 새롭게 메꾸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또 바닥재용도로로도 그 적용범위가 넓어져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95년에는 페인트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할 것이 확실시돼 국내 페인트시장이 새로운 양상을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대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이 일반 공업용도료보다는 기능성 및 특수용도료여서 이 시장들은 대기업참여후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염료 품목별 생산현황 (단위: M/T, %)							
구 분	1991			1992		1993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직접염료	4,011	3,758	▽6.3	3,576	▽4.8	3,147	▽12.0
산성염료	5,412	6,711	24	6,231	▽7.2	6,542	5.0
염기성염료	2,870	2,849	▽0.7	2,712	▽4.8	2,592	▽4.4
매염염료	90	202	124.4	223	10.9	192	▽13.9
건염염료	76	42	▽43.4	24	▽44.2	15	▽37.5
유용염료	378	1,202	217.9	413	▽65.6	347	▽16.0
황화염료	2,890	2,517	▽12.9	2,888	14.7	2,184	▽24.4
형광염료	4,079	3,843	▽5.8	4,694	22.1	4,366	▽7.0
반응성염료	10,161	11,173	9.9	13,269	8.8	13,772	3.8
분산염료	7,354	7,604	3.4	8,851	16.4	12,152	37.3
기타염료	162	164	1.2	112	▽31.1	178	58.9
합 계	37,488	40,071	6.9	42,999	7.3	46,009	7.0

국내 염료 생산현황 (단위: M/T, %)							
구 분	1991			1992		1993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공 급	생산	37,488	40,071	6.8	42,999	7.3	46,009
	수입	12,538	8,302	▽33.7	4,935	▽40.5	5,428
	계	50,026	48,373	▽3.3	47,934	▽0.9	51,437
수 요	내수	37,874	34,220	▽9.6	33,037	▽3.4	35,379
	수출	12,152	14,153	16.5	14,897	5.2	16,058
	계	50,026	48,373	▽3.3	47,934	▽0.9	51,437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옅염료 생산량은 93년대비 7%정도 증가한 1만465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5년에는 수요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5년 교과서개편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 및 각종 참고서의 재인쇄가 필요해 잉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95년 국내 잉크시장은 94년보다 나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엔고로 인해 국내 잉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포장용 인쇄물의 증가와 함께 95년에는 지방자치선거라는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염료, 품목별 명암 뚜렷한 가운데 분산염료 성장 돋보여

94년 염료시장은 93년에 비해 소폭 성장한 한해였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하기에는 미진한 한해였다.

국내 화섬산업의 호황으로 분산염료시장은 큰폭 성장했으나 세계적인 면작황의 부진에 따라 반응성 염료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한 해 였다.

또 중국산 및 인디아산 저가염료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국내 염료생산기업들을 괴롭혔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94년 염료 생산량은 93년대비 7%정도 증가한 총 4만6009톤으로 추정되며, 수출은 93년대비 7.8% 증가한 1만6058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정도로, 수출비중은 반응성염료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93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분산염료와 형광염료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한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승용차도료공급선을 놓고 삼성의 행보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에 나돌았던 소문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잉크시장, 후방산업 회복에 수출까지 호조

94년 잉크시장은 인쇄업계 및 식·음료업계의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잉크 생산실적은 93년대비 10%정도 증가한 2만8216톤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는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인스턴트식품 포장용 잉크 및 금속용잉크의 수요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94년 그라비아잉크 생산량은 93년대비 10%정도 증가한 7264톤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일회용식품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특히 94년 무더위로 인한 병과류의 수요폭증으로 병과포장지인쇄용 잉크의

수입은 93년대비 10%정도 증가한 5428톤으로 추정되며 고급염료는 일본과 유럽에서, 저급염료는 중국과 인디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안료 생산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유 기 안 료	아조	3,250	3,403	4.71	4,039	18.69	3,517	▽12.92
	레이크	878	885	0.80	952	7.57	1,056	11.32
	프탈로블루	2,853	3,127	0.96	3,432	9.75	2,931	▽14.59
	프탈로그린	117	90	▽23.08	113	25.56	175	55.09
	기타	1,027	885	▽13.83	1,197	35.25	2,031	69.7
	계	8,125	8,390	3.26	9,733	16.01	9,710	▽0.2
무 기 안 료	크롬	3,486	3,659	4.96	3,447	▽5.79	3,878	12.5
	징크	15,022	1,489	▽90.09	28,157	1,791.00	26,918	▽4.4
	감청	65	22	▽66.15	32	45.45	45	40.8
	기타	5,506	6,293	14.29	5,450	▽13.40	5,452	0.04
	계	24,079	11,463	▽52.39	37,086	223.53	36,293	▽2.1
조제안료		8,894	8,579	▽3.5	9,340	8.8	10,068	7.8
합 계		41,098	28,432	▽30.819	56,159	97.5	56,071	▽0.1

국내 접착제 생산현황				(단위: 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요소수지계	2,592	1,366	▽47.30	407	▽70.20	203	▽50.12
멜라민수지계	139	145	4.32	148	2.07	74	▽50.00
에폭시수지계	36	162	350.00	83	▽48.77	141	70.00
초산비닐용제형	1,457	2,020	38.64	1,486	▽26.44	1,531	3.00
초산비닐에멀전	18,252	19,339	5.96	14,926	▽22.82	16,419	10.00
초산비닐아크릴	4,052	6,265	54.62	2,397	▽61.74	2,637	10.00
VAE에멀전	1,149	2,047	78.15	4,878	138.30	5,854	20.00
아크릴에멀전	22,722	25,044	10.22	22,899	▽8.56	25,178	9.95
기타에멀전	2,438	2,751	12.84	2,380	▽13.49	2,400	0.84
핫멜트접착제	3,284	3,770	14.80	3,859	2.36	4,438	15.00
순간접착제	10	10	0.00	38	280.00	76	100.00
폴리우레탄계	6,915	8,170	18.15	9,416	15.25	10,828	15.00
합성고무계	23,030	20,465	▽11.14	16,322	▽20.24	13,873	▽15.00
천연고무계	812	1,016	25.12	944	▽7.09	950	0.64
기타접착제	1,994	2,584	25.59	5,169	100.04	11,492	122.33
합 계	91,414	95,181	4.12	89,808	▽5.65	96,904	7.90

분산염료의 생산량은 93년대비 37% 증가한 1만3722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도 93년대비 20% 증가한 2만 1519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염료 시장의 성장은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와 맞물려 폴리에스터섬유의 중국특수에 따른 후광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량의 60% 정도를 수출해온 분산염료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시장을 넓혀왔다.

특히 94년 중국의 면작황이 나빠 중국 섬유시장에서 폴리에스터섬유의 신장에 따라 국산 분산염료의 중국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4년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50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엔고로 인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약화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도 94년 분산염료시장 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내 분산염료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및 동남아시아 제품의 진출도 뚜렷했다. 특히 완제품과 함께 반제품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반응성염료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노정했다. 그동안 분산염료와 함께 국내 염료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반응성염료시장은 94년에는 3% 성장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도 90년대 들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저조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세계적인 면작황 부진에 따른 시장자체의 축소를 들 수 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국산염료 경쟁력약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자국내에 있는 반응성염료 공장을 생산비가 저렴한 인디아 및 중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저가의 질 좋은 염료가 세계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계면활성제 수급현황		(단위 : M/T, 10만원, %)							
구 분		1992		1993			199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증감률
수 요	내수	293,070	282,540	367,755	310,787	25.48	400,500	338,500	8.90
	수출	27,070	16,380	24,433	18,732	▽9.74	31,000	24,500	26.88
	계	320,140	298,920	392,188	329,519	22.51	431,500	363,000	10.02
공 급	생산	277,140	231,040	353,717	257,261	27.63	386,600	282,900	9.30
	수입	43,000	67,880	38,471	72,258	▽10.53	44,900	80,100	16.71
	계	320,140	298,920	392,188	329,519	22.51	431,500	36,300	10.02

이에따라 이들 제품에 비해 고가인 국내 반응성염료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염료의 생산량은 93년대비 5%정도 증가한 6542톤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은 나일론을 이용한 국내 스포츠웨어시장의 활황에 따라 내수 물량이 증가했으며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저가염료를 선호하는 곳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접염료의 생산량은 3만1475톤으로 93년대비 12% 감소했으며, 수출도 2392톤으로 3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염료의 생산 및 수출 감소는 지난 3년동안 계속됐으며 이는 염료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직접염료가 적용되던 부분은 이제 저가의 반응성염료가 적용되며 직접염료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벤지딘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시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는 저가의 직접염료를 선호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형광염료는 상반기에는 높은 생산·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93년대비 6%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화염료는 수출부진으로 생산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국내 염료 생산량은 94년대비 10%정도 증가한 5만609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95년에도 폴리에스터섬유의 신장이 계속되고 천연섬유시장도 94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여 반응성염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유럽의 다국적염료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내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안료는 프탈로시아닌, 무기안료는 크롬계 강세

94년 안료시장은 잉크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체양상을 보였다. 94년 안료 생산량은 5만6071톤으로 93년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료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안료 생산량은 93년대비 0.2% 감소한 9710톤으로 나타났다. 93년에 이어 프탈로시아닌계통의 안료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탈로시아닌그린의 경우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녹색잉크의 수요가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안료는 93년대비 7% 성장한 3만6293톤으로 집계됐으며 감청 및 크롬계안료의 생산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기안료는 대부분 중저가 안료로 잉크나 플라스틱마스터 배지용으로 사용돼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용도료 및 고급플라스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고급유기안료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용 레드칼라에 주로 적용되는 퀴나크리돈계안료는 93년 에 비해 10% 이상 성장했으며 고급칼라에 적용되는 인솔리딘은 94년 들어 꾸준히 시장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안료시장은 94년에 비해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년 잉크시장이 94년에 비해 좀더 큰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가공산업도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접착제시장 세대교체 확연

95년 국내 접착제시장은 94년에 비해 희망적으로 보인다. 94년에는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화학산업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진 반면 경공업부문에서는 별다른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95년에는 국내 경기회복이 경공업부문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경공업부문에 수요기반을 두고 있는 접착제시장도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 환경문제의 부각에 따라 기존의 용제형접착제보다는 에멀전접착제계열의 빠른 회복이 기대되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4년 국내 접착제 생산량은 조합사 기준 9만694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93년대비 7%정도 성장한 것이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아크릴에멀전계가 2만5178톤, 초산비닐에멀전 1만6419톤, 합성고무계 1만3873톤, 폴리우레탄계 1만828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94년에는 에멀전계접착제의 회복기미가 보였으나 요소계 및 멜라민계접착제는 93년에 이어 94년에도 각각 50%정도 감소했다. 요소계와 멜라민계접착제는 모두 포르말린을 원료로 해서 제조되는 저가의 접착제로 접착제기업들이 높아지는 환경처리비용 때문에 속속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민의 경우 94년 삼성정밀화학의 라인이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접착제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에멀전접착제시장은 다른 접착제와는 달리 93년에 비해 약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멀전접착제 중에서는 EVA에멀전접착제의 성장이 93년에 이어 94년에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EVA에멀전접착제의 성장은 접착제의 고급화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기능성 접착제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접착제의 경우 94년 시장규모는 8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93년대비 10%정도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시장에서 국내 생산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5년에도 이러한 시장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핫멜트접착제는 94년 전체적으로 1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회용핫멜트가 전체 핫멜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V접착제와 혐기성접착제도 일반접착제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UV 접착제는 94년에 2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 93년대비 30%정도 성장했으며 혐기성접착제는 40억원의 시장으로 93년대비 15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 대기업 참여에 "울고 웃는다"

94년 계면활성제 내수시장은 93년대비 8.9% 성장한 40만톤, 338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38만톤으로 93년대비 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성장은 94년 들어 국내 섬유 및 제지펄프시장이 회복되면서 동반상승효과를 누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계면활성제의 용도는 전 분야에 걸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50%정도가 섬유·피혁·제지·펄프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수출은 93년대비 26%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산제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수입품 대체 및 엔고에 따른 일본 및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94년 계면활성제 수입

량은 93년대비 16% 증가한 44만톤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계면활성제시장에는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에 따라 EOA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 기존에 EOA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OA를 사용해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생산하던 계면활성제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EOA를 공급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95년에는 국내 계면활성제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5/1/9>